

국내 기록학 학위논문의 주요 연구영역 분석

Analysis of Major Research Areas in Domestic Archival Science Based on Theses and Dissertations

정희명(Hoemyeong Jeong)¹, 김순희(Soonhee Kim)²

E-mail: in_baikal@naver.com, siva@cnu.ac.kr



1 제1저자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학과 박사수로
2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4.10.14

최초심사 2024.10.23

게재확정 2024.11.06

ORCID

Hoemyeong Jeong
https://orcid.org/0000-0002-7895-9073

Soonhee Kim
https://orcid.org/0000-0001-9510-3819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기록학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기록학의 주요 연구영역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2~2024년까지의 학위논문 2,225편을 조사하여 연도별·학교별·학위 종류별 발행 현황을 확인하고, 논문 제목을 연구대상·연구도메인·연구초점 등 세 가지 역할개념으로 구분하여 키워드를 추출, 군집화 및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위논문은 석사 2,152편(96.7%), 박사 73편(3.3%)이 발행되었고, 논문 제목에서 연구대상은 '활용·기록관리·기록', 연구도메인은 '특정 기록·특정 기관', 연구초점은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키워드가 주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23개 주제영역에 대하여 연구영역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주제영역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최근 10년간 IT기술, 기록학, 디지털 아카이빙, 교육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기록학의 연구영역을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국내 기록학의 지적구조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main research areas of archival studies in domestic master's theses. The publication status was determined by examining 2,225 theses published from 2002 to 2024. Thesis titl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research domain, research object, and research focus, with keywords extracted, clustered, and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master's theses accounted for 96.7% (2,152) of the total. Analysis of thesis titles also revealed that the research domain primarily covered "specific records/institutions," the research object included "utilization / record management / records," and the research focus centered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In addition, examining changes in research areas showed active research across various subjects over the past 20 years, with notable increases in studies on information technology, archival studies, digital archiving, education, and curriculum over the past decad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ield by analyzing research areas in archival studies, providing the foundational data for understand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domestic archival studies.

Keywords: 기록학, 학위논문, 논문제목, 연구영역, 구문분석

Archival science, Thesis and dissertation, Thesis and dissertation title, Research area, Sentence structure analysis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내 기록학의 학문적 영역 개척과 이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각 대학에 기록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다(한상완, 2001). 또한 2000년 한국기록학회의 '기록학연구', 2001년 한국기록관리학회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등 기록학 영역의 학회지가 창간되어 현재까지 많은 연구 성과물이 축적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내 기록학 분야의 지적구조와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노현아, 장우권, 2013). 개별 학문 분야가 축적한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일종의 구조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학문 분야가 발전하면서 이 구조는 점진적이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특정 학문 분야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 분야의 지적구조가 어떠한지,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김선희, 윤순진, 2015).

우리나라에 기록학이 등장한 20여 년 전과는 달리, 공공의 영역을 넘어 개인, 마을, 지역, 공동체 등 여러 영역에서 기록 수집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카이브라는 단어는 산업군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웹 기록,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형태의 기록이 등장하였다. 이처럼 기록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 기록학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간 학술지를 대상으로 기록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시도 되었으나,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기록학의 연구영역을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다. 학위논문은 연구의 독창성이 요구되며 연구 주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것으로, 사회에서 정보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다(조인숙, 1993). 또한 학위논문은 해당 학문의 주제지식 형성에 기여하고, 광범위한 참고문헌 및 각주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비공식 서지로 활용될 수 있다(김남석, 조도희, 1995). 그러므로 학위논문의 분석을 통해 특정 학문의 연구영역과 연구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해당 학문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김종성, 20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발행된 국내 기록학 석·박사 학위논문 2,225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학교별, 학위종류별 현황을 파악하고 논문 제목을 분석하여 국내 기록학의 주요 연구 영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기록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범위는 2024년 4월 기준, 기록관리학 과정을 운영한 28개 대학(폐지 3개교 포함)에 대하여 학교별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과 국회전자도서관 검색을 통해 확인한 석·박사 학위논문 2,225편이다. 1차적으로 국회전자도서관의 상세검색 기능을 통해 자료구분을 학위논문으로 한정하고 전공명에 '기록'을 입력하여 논문명, 저자, 소속 학교, 학위 종류, 논문 발행연도 등의 결과를 확보하였으나, 기록학 과정이 개설된 학교임에도 국회전자도서관에서 해당 학교의 학위논문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였다(국회전자도서관, 발행년불명). 이에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1824213, 공개일 2024.2.7.)를 진행하여 2023년 8월 기준의 기록관리학 운영 대학 명단을 확보하고, 추가 확인을 통하여 <표 1>과 같이 현행화하였다.

<표 1> 기록관리학 대학원 현황(2024.4. 기준)

학교명	과정 및 전공	학위과정	설치(폐지)연도
경남대학교	대학원 인문학과 기록관리학	석사	2000
경북대학교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기록학과	석사, 박사	2005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석사	2015
국립공주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	2000(2005)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석사	1999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	석사	2014
동아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 박사	2015
동의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사학과 기록관리학	석사, 박사	2014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문화자원기록전공, AI정보과학전공	석사, 박사	2000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전공	석사, 박사	2000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학전공	석사, 박사	2001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	2012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석사, 박사	2006
신라대학교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	석사	2006(2022)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석사	2008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 박사	1999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석사	2002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석사, 박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 협동과정	석사, 박사	2010
전북대학교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	석사, 박사	2010
전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기록사료학	석사, 박사	2020
중부대학교	휴먼텍대학원 기록물관리학과	석사	2006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 박사	2006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기록학과	석사, 박사	2000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석사, 박사	2000
한남대학교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	석사, 박사	2000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석사, 박사	2007
한신대학교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	석사	2007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	석사	2006(2013)

둘째, 기록학 개설 대학별 dCollection(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발행년불명)에서 학과별 학위논문 기능을 통해 논문명, 저자, 세부전공명, 학위수여연월, 학위명, 원문보기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명지대 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전공은 취득 학위가 스포츠기록분석학 석·박사로 확인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AI정보과학전공은 AI정보과학석사 학위 취득이지만 기록학 과목 수강자의 기록관리 전문가 자격증 획득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학위논문의 내용을 확인 후, 기록학 논문을 선별하였다(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발행년불명). 부산대·서울여대·숙명여대·연세대·중앙대 등은 dCollection에서 문헌정보학으로 분류되어 있어 세부전공명, 논문명, 저자 키워드, 목차 등을 확인하여 기록학 논문을 구별하였으며, 동의대 문헌정보·사학과는 논문 원문을 확인하여 인준지에 ‘기록관리학’이 기재된 논문만을 선별했다. 이러한 과정과 국회전자도서관 검색 결과와의 교차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2,225편의 기록학 석·박사 학위논문에 대한 논문정보 데이터를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9의 Excel에 입력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연구자가 Excel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논문명, 논문저자, 학교, 발행연도, 온라인이용 가능여부, 저자키워드, 국문초록 등을 정리한 결과, 학술지와 달리 학위논문에서는 저자키워드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경북대·대구 가톨릭대·전북대·충부대·충남대·한국외대 등의 경우 국문초록이 아닌 영문초록이 존재하였고, 이 외에도 국문초록이 없는 학위논문이 다수 있어 연구대상 2,225편의 논문 중 약 59%인 1,305편의 국문초록만을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 원문 미공개인 경우가 연구대상 2,225편의 논문 중 약 18%인 393편이었다(원문공개 1,832편 (8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많은 학위논문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원문공개 여부와 국문초록, 저자키워드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수집이 가능한 학위논문의 제목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분석 방법으로 우선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기록학 석·박사 학위논문을 학교별, 연도별, 학위종류별로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진행하고 발행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김규환 외(2009) 연구에서의 논문 제목의 의미 구조 분석기법을 차용하여 논문 제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225편의 논문 제목 내 키워드를 그 역할에 따라 연구대상(object), 연구도메인(domain), 연구초점(focus) 등 3가지 개념으로 구분해서 추출하고 군집화하여 역할개념별 키워드의 출현 빈도와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국내 기록학 학위논문의 주요 연구영역을 확인하였다.

1.3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기록학이 학문 분야로 자리 잡은 이래 기록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 중 국내 기록학 전반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로 김규환과 남영준(2009)은 1999년부터 2009년의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374개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연구 시기, 학회지 종류와 연구자 특성에 따른 주제 영역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연구 시기를 세분하여 1999~2001년에는 「기록관리학 교육」, 「기관」, 2002~2004년에는 「인력 및 윤리」, 「법·정책·제도」, 2005~2007년에는 「표준 및 기준」, 「평가」, 2008~2009년에는 「시스템·장비·기술」과 「아카이브즈」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남태우와 이진영(2009)은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록보존」, 「기록관리보존」, 「기록학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등 국내 기록학 학술지 논문 399편을 대상으로 기록학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록학 연구의 핵심 주제는 법률·제도·정책, 보존, 전자기록관리를 확인하였다.

최이랑(2015)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기록학 관련 학술지 5종 47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 아키비스트, 전자기록 등의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전자기록, 기록정보서비스, 평가 등이 주요 연구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손혜인과 남영준(2016)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에 게재된 681편의 논문을 조사하여 연구 주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두 학술지 주제의 빈도 분석 결과, 「관리」, 「공개·열람·활용」, 「기록일반」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전자기록물」, 「표준」이 그다음으로 나타났다.

박준형과 오효정(2017)은 기록관리학 학술지 2종, 문헌정보학 학술지 4종에서 1997~2016년에 발표된 논문 1,027건을 수집하고 텍스트마이닝 기법인 LDA 토픽모델링과 HDP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연구동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LDA를 통해서는 「전자기록」, 「메타데이터」, 「기록정보서비스」, 「보존」 등 거시적인 주제가 도출되었고, HDP 기법을 수행한 결과로는 「민간기록의 아카이빙」, 「전자기록물과 디지털 기술」, 「기록정보서비스의 디지털 활용 방안」 등 미시적인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김희섭과 강보라(2018)는 2001~2017년까지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논문에서 저자키워드 875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주제는 「기록정보

서비스’, ‘전자기록물’, ‘역사기록물’, ‘아키비스트’, ‘국가기록원’ 순이었으며 영향력 측면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 ‘전자기록물’, ‘평가’, ‘지역기록물’, ‘검색시스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정보서비스’, ‘아키비스트’, ‘전자기록물’,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등의 키워드는 연구 확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준형 외(2018)는 1997~2016년까지의 국내 기록관리학 관련 1,027건 학술논문을 수집하여 시계열 기반 토픽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전·후기 10년, 5년 주기로 나누고 각각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자기록, 기록정보서비스, 다양한 기록물의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덕용과 허준석(2023)은 2004~2023년까지의 기록학 학술지 1,157편에서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국문초록을 추출하였다. 초록에서 추출한 77,578개 키워드를 빈도 분석하고 키워드 간 거리 분석을 통해 ‘기록관리, 분석, 아카이브, 기록물, 활용’ 등의 주요 연구 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2002~2011년에는 아카이빙, 국가기록관리, 표준화, 공문서, 기록관리제도 등의 키워드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2012~2023년에는 공동체, 데이터, 기록정보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브 등의 주제가 주로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국내 기록학 학술지를 대상으로 기록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통해 2000년대 초반에는 기록관리 제도, 기록학 교육과정, 기록의 보존 등이 주요 연구 주제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관리와 전자기록, 공동체, 아카이빙 등의 주제가 활발하게 연구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 조인숙과 신준성(2012)은 2001~2010년간 국내 기록학 석·박사 학위논문 560편을 대상으로 논문의 주제영역을 분석하였는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학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영역 동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논문 제목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논문 제목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김규환 외(2009)는 1999~2008년까지 국내 기록학 분야 학술지 3종에서 344개의 논문을 선정하고, 논문 제목의 구문 및 의미 구조를 분석하여 국내 기록학 연구영역을 규명하였다. 김용학과 유소영(2013)은 한국과 일본의 인문사회 분야 논문 키워드 연결망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논문 데이터베이스가 저자키워드를 일관되게 수록하고 있지 않아 논문 제목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강정배(2015)는 논문 제목은 논문의 핵심 주제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특수교육 분야 6,954편의 논문 제목을 네트워크 분석하고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김선희와 윤순진(2015)은 국내 환경사회학의 지적 구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기 위하여 환경사회학 학술지 논문 제목의 단어를 대상으로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박희정(2017)은 ‘언어치료 연구’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제목을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여 언어치료 분야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종합하면 논문에서 분석 가능한 범주는 논문 제목, 저자키워드, 초록, 논문 전문 등이 될 수 있는데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저자키워드 또는 초록을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나 대량의 논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할 때, 논문의 제목을 중심으로 특정 학문의 연구영역 또는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논문 제목은 연구의 내용과 핵심 주제를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다른 연구자가 해당 연구 성과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논문 제목에 구체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다(Buxton & Meadows, 197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능한 많은 수의 기록학 학위논문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석·박사 학위논문의 제목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2002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기록학 분야의 연구영역을 분석하였다.

2. 국내 기록학의 석·박사 학위논문 현황

2.1 학교별 학위논문 발행 현황

2002년 2월 충남대학교 대학원 기록보존학협동과정 기록관리전공의 석사 학위논문이 처음 발행된 이후, 2024년 4월까지 총 27개 대학에서 2,225편의 기록학 석·박사 학위논문이 발행되었다. 2022년, 대학원 사학과에 기록사료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전주대학교는 2024년 4월 기준 발행 논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는 2024년 4월 기준, 학위논문의 수가 많은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 학교별 학위논문 발행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학교별 학위논문 발행 현황(2002.2.~2004.4.)

학교명	설치(폐지)연도	학위논문 수		학교별 논문 수	비율(%)
		석사	박사		
명지대학교*	2000	407	27	434	19.51
한국의국어대학교*	2000	370	20	390	17.53
중부대학교	2006	163	-	163	7.33
한남대학교*	2000	112	2	114	5.12
경북대학교*	2005	107	1	108	4.85
중앙대학교*	2006	98	5	103	4.63
부산대학교*	2000	102	0	102	4.58
충남대학교*	2000	100	0	100	4.49
전북대학교*	2010	88	6	94	4.23
한신대학교	2007	84	-	84	3.78
이화여자대학교*	2002	71	5	76	3.42
서울대학교*	2001	70	0	70	3.15
신라대학교	2006(2022)	52	-	52	2.34
전남대학교*	2010	49	2	51	2.29
한성대학교*	2007	41	0	41	1.84
경남대학교	2000	36	-	36	1.62
원광대학교*	1999	35	0	35	1.57
숙명여자대학교*	2006	23	5	28	1.26
대구가톨릭대학교	2014	25	-	25	1.12
국립목포대학교	1999	21	-	21	0.94
동의대학교*	2014	21	0	21	0.94
국립공주대학교	2000(2005)	19	-	19	0.85
한양대학교	2006(2013)	15	-	15	0.67
국립강릉원주대학교	2015	14	-	14	0.63
동아대학교*	2015	12	0	12	0.54
서울여자대학교	2012	9	-	9	0.41
연세대학교	2008	8	-	8	0.36
전주대학교*	2020	0	0	0	0
석사·박사학위별 논문 수 합계 (비율)		2152 (96.7%)	73 (3.3%)	2225	100

* 박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학교

200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가장 많은 졸업논문을 발행한 학교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으로 총 434편의 학위논문이 있었다. 명지대는 석사와 박사학위 논문으로 구분해도 기록학 개설 대학 중 가장 많은 수의 학위논문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가 총 390개의 학위논문을 생산하였다. 명지대와 한국외대의 논문 수를 합하면 824편으로 기록학 학위논문 전체 중 약 37%의 논문이 이 두 곳의 학교에서 발행되었다. 중부대학교는 석사학위 과정만을 운영하는데 163개의 석사논문을 생산하여 전체 논문 수 3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한남대, 경북대, 중앙대, 부산대, 충남대 등이 100편 이상의 기록학 학위논문을 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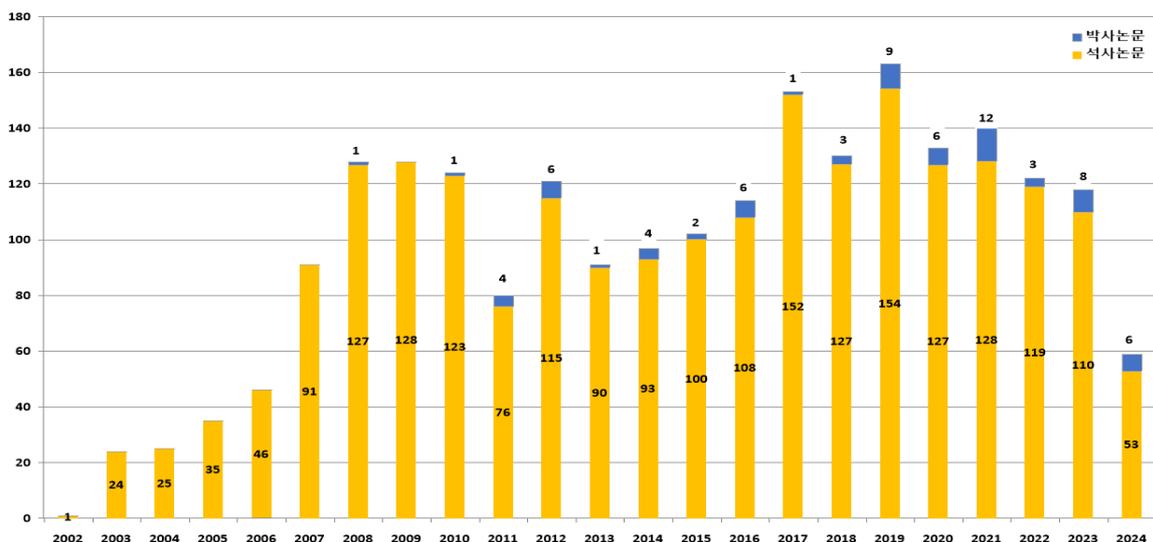
박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학교는 전체 28개교 중 17개교로 약 61%였으며, 이 중 대학 중 명지대(27편), 한국외대(20편), 전북대(6편), 숙명여대·이화여대·중앙대(각 5편), 전남대·한남대(각 2편), 경북대(1편) 등 9개 대학만이 박사 학위논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사 학위논문으로 한정하여도 논문 수 상위 2개 대학은 명지대와 한국외대이고, 이 두 대학의 박사 학위논문 수를 합하면 47편으로 전체 박사 논문 중 약 64%를 차지한다. 학위논문은 대학원 교육의 산물, 또는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국내 기록학 교육과정 개설 학교 중 명지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기록학 학위과정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2.2 연도별 학위논문 발행 현황

다음으로 2002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연도별 학위논문 발행 현황을 <표 3>과 <그림 1>로 정리하였다.

<표 3> 연도별 석·박사 학위논문 수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석사	1	24	25	35	46	91	127	128	123	76	115	90	93	100	108	152	127	154	127	128	119	110	53	2152
박사	0	0	0	0	0	0	1	0	1	4	6	1	4	2	6	1	3	9	6	12	3	8	6	73
합계	1	24	25	35	46	91	128	128	124	80	121	91	97	102	114	153	130	163	133	140	122	118	59	2225
누계	1	25	50	85	131	222	350	478	602	682	803	894	991	1093	1207	1360	1490	1653	1786	1926	2046	2166		2225



<그림 1> 연도별 석·박사 학위논문 분포

국내 기록학 학위논문은 2022년 1편이 발행된 것을 시작으로 바로 다음 해인 2003년에는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 논문의 생산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2008년에는 128편의 논문이 발행되고 누계는 350편을 기록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 동안에는 꾸준히 120편이 넘는 논문이 생산되었다. 2015년에는 논문 수 누계가 1,000편을 넘어섰으며, 2019년에는 석·박사 학위 논문을 합하여 가장 많은 163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총 논문 수는 2019년 정점을 찍은 후 소폭 감소하는 형태이나 여전히 매년 120편 정도의 논문이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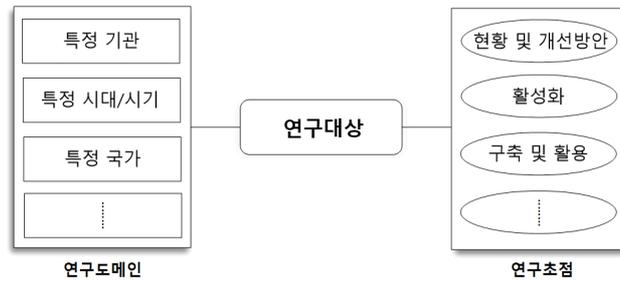
기록학 박사 학위논문은 2008년 처음 발행되었고 지속적으로 한 자리 수에 머물다가 2021년에 이르러 가장 많은 수인 12편이 생산되었다. 기록학 석사 학위논문이 2002~2024년 사이 연평균 93.6편 생산된 것에 비해 박사 학위논문은 2008~2024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4.3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다. 박사과정 연구자는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둔 독창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박사 논문을 통해 자신의 연구 역량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로 인해 박사 논문에는 해당 학문의 새로운 연구 방향이 나타나게 되고, 박사 논문은 해당 학문의 연구 경향 변화를 민감하게 보여주는 적실한 자료가 된다(김병준, 천정환, 2020; 송정숙, 2010). 우리나라에서 기록학이 학문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은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기록학 분야의 박사 학위 논문 수는 73편에 그쳐, 앞으로 기록학의 이론적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학문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기록학의 석·박사 학위논문 2,225편의 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위논문의 약 37%가 명지대와 한국외대에서 발행되었으며, 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두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4%로 나타났다. 석사논문의 수는 2,152편이며 박사논문의 수는 73편으로 석사논문이 박사논문보다 약 29배 많이 발행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국내 기록학은 지난 20여 년간 특히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실무형 인재 양성에 집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3. 국내 기록학의 연구영역 분석

논문의 제목은 연구의 내용을 간결하고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서, 연구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논문 제목에는 연구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제시되면서도 연구주제가 명확하게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 논문 제목은 3~4개 정도의 단어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 요구되는 경우, 부제를 첨가하기도 한다(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임인재, 김신영, 2006). 논문의 제목에는 일정한 구문 및 의미 구조의 패턴이 나타난다. 그 패턴을 살펴보면 논문 제목에 있는 키워드들은 일정한 역할을 맡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각 키워드는 논문 제목 안에서 연구대상으로 사용되고, 연구의 범위를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연구대상의 연구초점을 의미한다(김규환 외, 2009; 김영민, 이상준, 2003).

본 장에서는 김규환 외(2009)의 연구 분석 방법에서 착안하여 국내 기록학의 연구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논문제목의 키워드를 역할별로 연구대상(object), 연구도메인(domain), 연구초점(focus) 등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고 의미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연구의 중심 분석대상인 키워드의 집합이며, 연구도메인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는 시간이나 공간, 범위 등을 제한하는 키워드를 의미한다. 연구초점은 연구대상을 분석하는 활동이나 속성, 방법 등을 의미하는 키워드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2>는 세 가지 역할개념과 개념 간 의미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2> 논문제목 내 키워드의 역할개념과 의미 관계 (김규환 외, 2009)

Excel을 활용하여 2,225편의 논문 제목의 명사구와 조사(주격, 목적격, 부사격 등)를 확인하고, 연구대상·연구도메인·연구초점이 되는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역할개념별 키워드의 개수와 사례는 <표 4>와 같다. 학위 논문 제목에서 ‘기록’과 ‘기록물’, ‘기록학’과 ‘기록관리학’이 혼용되고 있었는데, 이를 본 연구에서는 ‘기록’과 ‘기록학’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표 4> 역할개념별 키워드 수 및 사례

역할개념	전체 개수	키워드 수	키워드 사례
연구대상	2,188	1,355	기록, 기록관리, 기록정보서비스, 아카이브, 기록정보콘텐츠, 정보공개제도, 기록관리기준표, 평가정책, 디지털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매뉴스크립트
연구도메인	1,864	915	공공기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대학, 지방자치단체, 국내(대한민국, 우리나라, 한국), 해외, 공공기록, 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전자기록, 기업,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디지털 환경
연구초점	1,659	161	현황 및 개선방안, 구축 및 활용, 개발방안, 설립, 설계, 분석, 관리방안, 발전방향, 수립, 적용
합계	5,711	2,431	

예를 들어 ‘폐교사립대학 기록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논문 제목에서 연구대상은 ‘기록관리’, 연구도메인은 ‘폐교사립대학’, 연구초점은 ‘현황 및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공공기록의 평가정책 개발방안’이라는 제목에서 연구대상은 ‘평가정책’, 연구도메인은 ‘공공기록’, 연구초점은 ‘개발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논문의 제목 안에 연구대상·연구도메인·연구초점이 모두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걷기 아카이브’와 같이 지나치게 논문 제목이 짧거나 ‘기억, 기록, 아카이브 정의’와 같이 연구의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하게 표현된 제목의 경우는 세 가지 역할개념이 불분명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동일한 단어가 논문 제목에 따라 다른 역할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술기록’이라는 단어가 ‘대학 예술기록의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사용되었고, ‘예술 기록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 설계’라는 제목에서는 연구도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역할개념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은 문자 그대로 학위논문의 핵심 연구 주제가 되는 대상을 의미하며, 다소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연구대상을 부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2,225개의 논문 제목에서 추출한 연구대상은 2,188개이며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1,355종의 연구대상을 도출하였다. 연구도메인은 연구대상의 시공간적 배경 또는 특정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의, ~에서’ 등의 조사와 붙어있는 명사구이며 논문 제목의 맨 앞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도메인은 1,864개이며 중복 출현 키워드를 정리하면 915종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연구초점은 주로 제목의 끝부분에 있으며, 연구의 목적이나 방향, 예상하는 결과 등을 나타내는 키워드이다. 사례로는 ‘~현황 및 개선방안, ~구축 및 활용, ~설립, ~적용’ 등이 있다. 연구초점은 1,659개이고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161종의 키워드가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역할개념별 키워드 분포를 확인하고 주제영역을 도출하였다.

3.1 연구대상 키워드 분포와 주제영역 도출

세 가지 역할 키워드 중에서도 ‘연구대상’은 해당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이자 논문 제목에서의 핵심 키워드이다. 따라서 연구대상 키워드 1,355개를 군집화하여 국내 기록학 학위논문의 주요 연구영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군집화 기준은 김규환 외(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핵심 연구대상 23개 영역과 손혜인과 남영준(2016)의 연구에서 제시한 14개 주제 영역을 참고하였다.

선행연구의 주제 영역과 차별되는 부분은 기록과 기록관리 영역을 공공영역의 기록, 공공영역의 기록관리, 민간 영역의 기록 및 기록관리 등으로 범주화한 것이다. ‘공공영역의 기록’은 공공영역에서 생산되는 기록 또는 기록물에 대한 키워드를 군집화한 것이며, ‘공공영역의 기록관리’는 공공영역에서의 기록관리 업무에 관한 키워드를 군집화한 것이다. ‘민간영역의 기록 및 기록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관 이외에서 생산되는 기록과 기록관리 활동에 대한 키워드를 군집화한 것이다. ‘기록’과 ‘기록관리’로 연구대상의 주제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공영역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민간영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해당 영역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나 의의, 활동 등을 아울러 연구한 경우가 많아 기록과 기록관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군집화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별도 주제영역으로 설정한 윤리인식, 윤리강령은 본 연구에서는 출현빈도가 2회로 나타나 ‘인력’ 영역에 포함하여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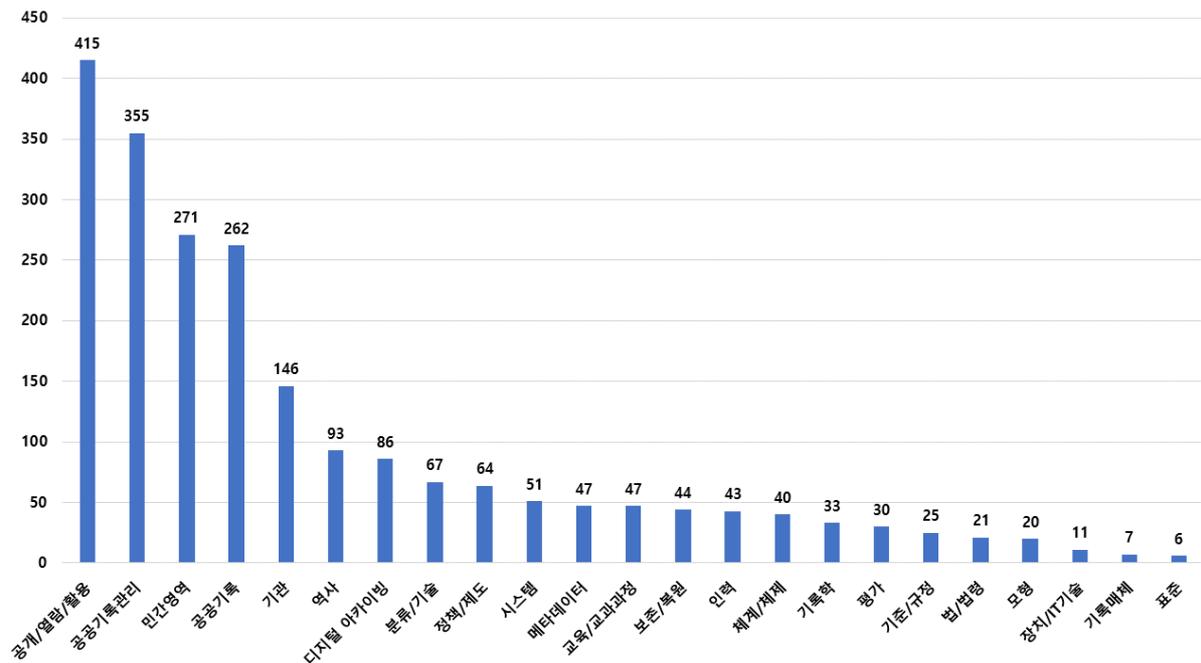
다음으로 기록관리기관 및 문화유산기관 관련 키워드는 ‘기관’으로 구분하고, 역사적 기록, 유물, 사건, 박물관 등에 대한 키워드는 ‘역사’로 군집화하였다. 그 외 주제영역은 선행연구에서의 기준을 참고하여 군집화하였다. 여기서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 요소나 메타데이터 표준을 의미하며, 표준은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및 기록관리 표준에 대한 키워드를 뜻한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23개 주제영역을 도출하였다.

<표 5> 연구대상 키워드의 군집화를 통한 주제영역 도출 및 주제영역별 출현빈도

연구대상 키워드 사례	연구대상 키워드 군집화를 통한 주제영역	출현빈도(회)	비율(%)
열람, 제공, 정보공개,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정보콘텐츠, 전시, 홍보, 히스토리마케팅, 서비스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교육콘텐츠, 연구지원서비스, 이용자만족도	공개/열람/활용	415	18.97
국가/지방/특수 기록관리, 기록 생애주기, 기록관리 업무, 기록관리 프로세스, 기록관리 기준표, 기록물분류기준표, 기록관리 전자화, 기록관리 기관평가, 기록보존, 재난대책	공공영역의 기록관리	355	16.22
민간기록, 개인기록, 노동조합기록, NGO기록, 교회기록, 민간단체기록, 예술기록, 공동체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브, 로컬리티 기록화, 지역 기록화, 집단기억, 사회적 기억, 동시대 사건과 기록, 기타 민간영역에서 생산되는 기록 및 기록관리 활동	민간영역의 기록 및 기록관리	271	12.39
공공기록, 종이기록, 전자기록, 웹기록, 시청각기록, 비밀기록, 대통령기록, 필수기록, 연구기록, 사건기록, 행정박물관, 간행물, 회의록,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타 공공영역에서 생산되는 기록	공공영역의 기록	262	11.97
기록보존소, 자료관, 기록관, 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 대학기록관, 학교기록관, 교회기록관, 마을기록관, 문화유산관리기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라키비움	기관	146	6.67
역사기록, 역사서에 대한 비평, 역사적 사건과 기록 간의 관계 분석, 고문서, 해외 수집 역사 관련 기록, 해외소재 한국역사 기록, 박물관, 근대기록물	역사	93	4.25
분야별 아카이빙,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빙, 웹 아카이빙	디지털 아카이빙	86	3.93
정리, 분류, 분류체계, 기술, 기술규칙, 검색도구	분류/기술	67	3.06
기록관리정책, 인력양성제도, 기록전문직렬제도, 평가제도, 정보공개제도	정책/제도	64	2.93
기록관리시스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전자제어시스템, 통합검색시스템, 검색시스템	시스템	51	2.33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요소	메타데이터	51	2.33

기록학 교과/교육과정, 기록전문직 양성교육, 기록관 인력 대상 교육프로그램	교육/교과과정	47	2.15
보존/복원/탈산처리 기술, 보존환경	보존/복원	44	2.0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록연구사, 아키비스트, 레코드 매니저, 기록전문직, 직무분석,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직무능력표준, 윤리인식, 윤리강령	인력	43	1.97
국가, 국회, 지방, 특수, 공공, 학교, 기업, 민간기록 관리체계	체계/체제	40	1.83
기록학, 기록학 이론, 기록학 역사, 국내외 연구동향, 학회	기록학	33	1.51
평가, 평가지표, 평가기준, 재평가, 평가선별	평가	30	1.37
기록관리규정, 문서관리규칙, 지침	기준/규정	25	1.14
공공기록물관리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기록관리 유관법령	법/법령	21	0.96
OAIS 참조모형, 이관절차모형, 기록관리모형, 진본평가시스템모형	모형	20	0.91
기록관리 장치/장비/도구, 정보통신기술	장치/장비/도구/IT기술	11	0.50
마이크로필름, 종이, 보존매체, 기록매체, 전자매체	기록매체	7	0.33
기록관리 표준, 기록정보서비스 표준,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표준	6	0.27
합 계		2,188	100

23개 주제영역에 대한 연구대상 키워드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자 주제영역별 출현빈도를 <그림 3>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림 3> 연구대상 키워드의 주제영역별 분포

기록학 학위논문 제목에 등장하는 키워드 중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도출하고 23개 주제영역으로 군집화한 결과, 18.97%가 ‘공개/열람/활용’ 영역에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16.22%의 키워드는 ‘공공영역의 기록관리’에 대한 것이었으며, 뒤이어 ‘민간영역의 기록 및 기록관리’ 12.39%, 공공영역의 기록’에 대한 키워드가 11.97%로 나타났다. 상기 네 가지 주제영역의 비율을 합하면 약 59.6%로, ‘기록의 활용, 공공영역의 기록과 기록관리, 민간영역의 기록과 기록관리’ 영역이 국내 기록학 학위논문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연구대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종 기록관리기관과 문화유산관리기관, 라키비움 등 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가 키워드 출현빈도 146회, 6.67%로 나타났으며, 역사적 관점의 연구(4.25%)와 아카이빙(3.93%), 분류/기술(3.06%) 등이 뒤를 이었다 2%대의 비율로는 기록관리 관련 각종 정책/제도와 시스템, 메타데이터, 교육/교육과정, 보존/복원 등의 주제영역 키워드가 있었다. 인력에 대한 키워드(43회, 1.97%)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뿐 아니라 기록연구사, 아키비스트, 레코드 매니저, 기록전문직 등 여러 명칭으로 논문제목에 등장하였으며, 인력에 대한 직무분석과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 직무능력표준 등 다양한 관점의 키워드가 존재하였다.

연구대상 키워드의 군집화에서 비교적 낮은 0%대의 비율의 주제영역은 체계/체제(40회, 1.83%), 기록학(33회, 1.51%), 평가(30회, 1.37%), 기준/규정(25회, 1.14%), 법(21회, 0.96%), 기록관리 모형(20회, 0.91%), 기록 처리 장비·IT기술(11회, 0.50%), 기록매체(7회, 0.33%), 기록관리 표준(6회, 0.27%)등에 관한 연구로 나타났다.

3.2 연구도메인 및 연구초점의 분포

연구도메인과 연구초점은 논문 제목 안에서 연구대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보조적인 역할개념이다. 두 가지 개념을 각각 군집화하여 빈도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먼저 연구도메인은 연구가 수행되는 시간이나 공간, 범위 등을 제한하는 키워드를 의미한다. 논문 제목에서 도출한 연구도메인 915개를 김규환 외(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군집화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25개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그림 4>로 시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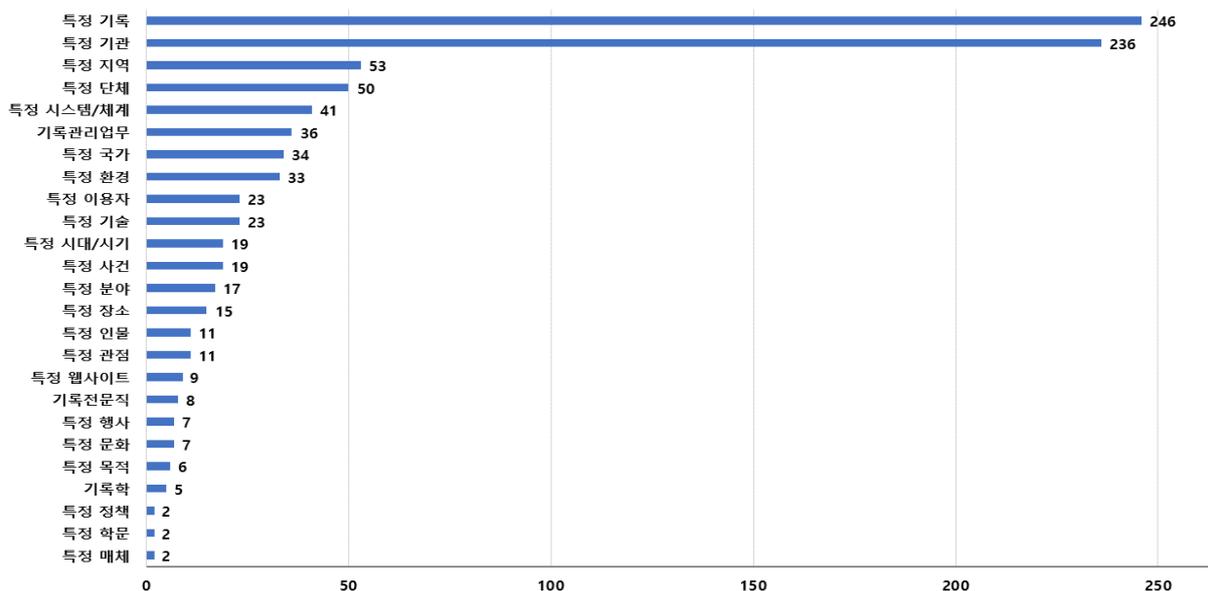
<표 6> 연구도메인 키워드의 군집화 결과와 군집별 출현빈도

연구도메인 키워드 사례	연구도메인 키워드 군집화	출현빈도(회)	비율(%)
공공기록물, 전자기록, 구술기록, 개인기록, 예술기록	특정 기록	246	26.89
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원, 공공기관, 대학, 육군, 방송사, 교육청	특정 기관	236	25.79
부산지역, 마산지역, 폐광지역, 도시개발지역, 재개발지역	특정 지역	53	5.79
시민단체, 노동조합, 4.16 가족협의회	특정 단체	50	5.46
기록관리시스템, 기록경영시스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특정 시스템/체제	41	4.48
공공기록관리, 지방기록물관리, 기록관리, 처리과	기록관리업무	36	3.93
러시아,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특정 국가	34	3.71
디지털 환경, 온라인 환경, 모바일 환경, 전자기록 환경	특정 환경	33	3.61
대학생, 장애인, 외국인, 초등학생	특정 이용자	23	2.51
가상화 기술, 3D 기술, 블록체인, 메타버스, 생성형 AI, 챗 GPT	특정 기술	23	2.51
조선시대, 조선후기, 갑오개혁시기, 일제강점기, 근현대, 1950년대	특정 시대/시기	19	2.08
동학농민운동, 3.1운동, 제주 4.3사건, 한국전쟁, 5.18민주화운동	특정 사건	19	2.08
건설 분야, 문화재 부분, 해양수산 분야, 정치영역, 패션 분야	특정 분야	17	1.86
거리, 골목, 부산항, 영도대교, 전통시장, 팔복예술공장	특정 장소	15	1.64
민족주의, 여성사 관점, 기호학적 접근, 페미니즘 관점, 거시적	특정 관점	11	1.20
가수 김광석, 조용필, 김대건 신부, 작가 이정명	특정 인물	11	1.20
나라기록포털, 공공데이터포털, 세계기록유산 웹사이트	특정 웹사이트	9	0.98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록연구사, 기록전문직, 아키비스트	기록전문직	8	0.87
K-POP, 브레이킹, 아이돌 팝, 캐릭터	특정 문화	7	0.77

남원 춘향제, 연등회, 광주비엔날레, 지역문화행사	특정 행사	7	0.77
지역화 교육, 유아기 학습자 교육용, 중학교 3학년 역사수업	특정 목적	6	0.66
기록학, 기록관리학 연구자,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	기록학	5	0.55
문화재보존정책, 가족정책	특정 정책	2	0.22
하드디스크, 광기록 매체	특정 매체	2	0.22
고고학, 한국학	특정 학문	2	0.22
합 계		91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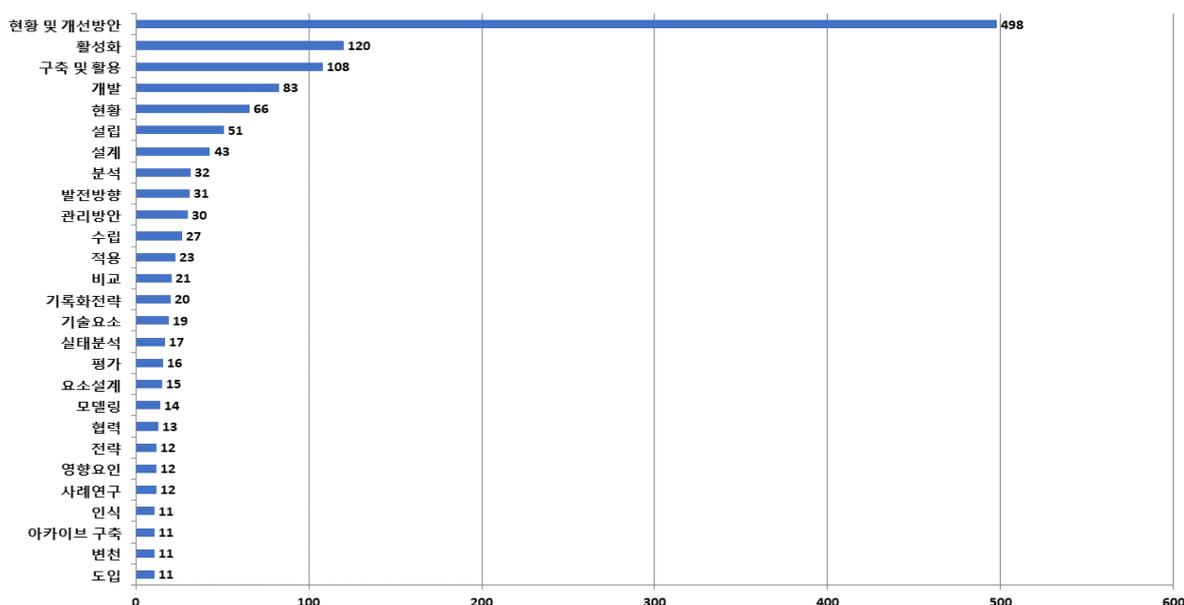
연구도메인 키워드의 군집화 결과, 25개 범주 중 ‘특정 기록’에 대한 비율이 26.89%, ‘특정 기관’에 관한 비율이 25.79%이며, 이 두 범주가 52.68%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록학 학위논문 제목 중 “특정 기록’에 대한 OO연구” 또는 “특정 기관’에서의 OO연구”와 같은 형태가 절반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특정 지역, 특정 단체나 시스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도메인 범주가 뒤를 이었으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특정 환경 범주는 주로 디지털, 온라인과 같은 전자기록 환경 관련 도메인을 군집화한 것으로 3.61%였다. 대학생이나 장애인, 외국인 등과 같이 특정 이용자층에 대한 키워드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특정 기술을 도메인으로 하는 경우는 2.51%였으며, 일제강점기, 조선후기와 같은 특정 시대를 연구도메인으로 하는 경우는 2.08%였다. 다음으로 특정 사건, 분야, 장소, 관점, 인물, 웹사이트 등의 범주가 있었으며 기록전문직, 특정 문화나 행사, 특정 목적을 범위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록학에 대한 연구나 특정 정책, 매체, 학문을 배경으로 하는 도메인도 존재하였다.

연구도메인의 분포 형태가 상위 2개 도메인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그림 4>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비록 기록학 학위논문 제목에서 특정 기록과 특정 기관 도메인 범주에 대한 비율이 매우 높지만, 그 외 민간 영역, 첨단 기술, 개인, 사회와 문화 등 여러 도메인을 통해 국내 기록학에서 다양한 범위의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연구도메인의 군집별 분포

다음으로 연구초점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연구초점은 연구대상에 대하여 어떤 제안을 제시하거나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키워드이다. 국내 기록학 학위논문의 연구초점은 ‘현황 및 개선방안, 활성화, 구축 및 활용, 개발, 현황, 설립, 설계, 분석, 관리방안, 발전방향, 수립, 적용, 비교, 기록화전략’ 등의 161개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 중 출현빈도가 10회 이상인 27개 연구초점의 키워드를 선별하여 분포를 확인하고 <그림 5>와 같이 표현하였다.



<그림 5> 연구초점(출현빈도 10회 이상)의 분포

논문 제목에서 연구초점은 1,659개의 키워드 중 498개가 ‘현황 및 개선방안’으로 30.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활성화’가 120개로 7.23%, ‘구축 및 활용’이 108개, 6.50%로 뒤를 이었다. 따라서 국내 기록학 학위논문에서는 연구대상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형태의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현황’ 키워드도 66회 등장하였는데, ‘현황 및 개선방안’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현황’은 현재의 상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라는 차이가 있다. 논문제목의 사례로는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 현황에 관한 연구, 기업기록관리 현황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그 외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 특정 모형이나 프로세스의 설계 등도 연구초점을 의미하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기록학 학위논문의 연구초점이 ‘현황 및 개선방안’과 ‘활성화’, ‘구축 및 활용’ 등에 집중된 것은 ‘국내 기록학은 사회적 수요와 밀접하게 연계된 응용학문이며, 기록관리 실무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해왔다(설문원, 2021).’는 평가와도 상응한다.

3.3 연도별 주제영역의 변화 분석

앞서 23개의 주제영역을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대상 키워드의 연도별 주제영역 출현 수를 <표 7>로 정리하고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제영역의 명칭 중 공개/열람/활용은 활용, 공공영역의 기록은 공공기록, 공공영역의 기록관리는 공공기록관리, 민간영역의 기록 및 관리는 민간기록(관리), 장비/도구/IT기술은 장비·IT 기술로 축약하여 기재하였다.

<표 7> 연도별 주제영역 변화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활용			1	3	5	19	21	24	22	15	24	17	22	26	20	38	21	24	24	23	27	25	14	415
공공기록관리		3	5	6	16	13	19	9	20	8	17	18	17	10	17	11	29	26	28	24	24	27	8	355
민간기록(관리)		2	5	6	2	12	12	20	11	15	14	14	12	16	16	24	10	21	13	16	11	14	5	271
공공기록		9	5	7	8	14	28	20	17	14	15	1	11	8	13	23	11	14	8	13	10	8	5	262
기관		3	2	1	5	3	7	10	9	10	7	7	6	5	9	6	9	11	9	10	6	7	4	146
역사	1	4	3	1	2	3	5	4	6	5	2	6	1	4	5	3	7	10	3	9	3	4	2	93
디지털 아카이빙				1		1	3	2	5	3	6	2	4	3	2	11	7	12	8	4	3	5	4	86
분류·기술		2	1		2	2	2	5	6	1		4	6	3	4	4	1	7	5	6	4	2		67
정책·제도				4		6	3	4	4		5		3	6	5	6	5	5	4	2	1	1		64
시스템			1	1	1	5	5	2	1		5		2	2	2	1	3	4	1	3	4	4	4	51
교육/교과과정				1		3	1	1	2		4	1	1	2	6	1	1	1	5	5	4	3	5	47
메타데이터				1	2	4	1		3	1	4	4	2	4	1	4	3	2	1		4	5	1	47
보존·복원		1	1			1	5	5	4		4	2			1	2	2	5	3	5	2		1	44
인력							2	3		4	2	3	1	1	3	5	5	1	5	3	2	3		43
체계·체제			1		2	1	2	6	4		4	1	1	3		1	2	3	2	1	3	3		40
기록학					1		1	1		2	2	3	2	1	2	2	1	5	4		3	1	2	33
평가						1	2	3	2	1	1	3	1	2		2	1	1	2	5	1	2		30
기준·규정							2	3	2					1	2	2	4	2	2	3	1		1	25
법·법령				2		1	2		2		1	1	1	2	2		1	1	1	1	1	1	1	21
모형						2	2	3	1		2		2	1			1	2		3		1		20
장비·IT기술							1							1		1		2	1	1	3		1	11
표준				1					1		2		1		1		1			1	1		1	10
기록매체							1		1	1	1	1				1						1		7

전체적으로 지난 20여 년간 발행된 국내 기록학 학위논문은 23개 주제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초기에는 공공영역의 기록과 기록관리, 역사, 기관, 분류·기술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2008년에 이르러서는 학위논문의 수도 증가하였으며, 전 주제영역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기관에 대한 연구는 20년 동안 논문의 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고, 전자적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는 점점 증가하여 2017~2019년 사이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였다. 분류·기술, 정책·제도, 보존·복원, 체계·체제, 평가 등의 주제영역 또한 낮은 수치이지만 꾸준히 연구되다가 최근 3년(2022~2024년)간은 논문 수가 감소하였다.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연구되었으며, 최근 3년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분야이다.

다음으로 주제영역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와 후기로 기간을 구분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23년간이므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11년 동안을 전기로 정하고, 2013년부터 2024년까지의 12년간을 후기로 정하였다. 여기서 2024년의 수치는 8월 졸업 논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연구대상 키워드의 주제영역별 출현빈도를 전·후기로 나누어 합산하고 증감률을 <표 8>로 정리하였다. 증감률은 출현빈도를 대상으로 '(후기-전기)/전기*100'을 계산한 결과이다.

<표 8> 시기별 주제영역 분포와 증감률

주제영역	전기(2002~2012년)	후기(2013~2024년)	증감률(%)
장비·IT기술	1	10	900
기록학	7	26	271
디지털 아카이빙	21	65	210
교육/교육과정	12	35	192
인력	11	32	191
기준·규정	7	18	157
분류·기술	21	46	119
활용	134	281	110
공공기록관리	116	239	106
평가	10	20	100
메타데이터	16	31	94
민간기록(관리)	99	172	74
법·법령	8	13	63
역사	36	57	58
기관	57	89	56
표준	4	6	50
정책·제도	26	38	46
시스템	21	30	43
보존·복원	21	23	10
모형	10	10	0
체계·체제	20	20	0
공공기록	137	125	-9
기록매체	4	3	-25

그 결과 장비·IT기술, 기록학, 디지털 아카이빙, 교육/교육과정, 인력, 기준·규정, 분류체계/기술규칙, 활용, 공공기록관리, 평가 등의 주제영역이 키워드 출현 수는 적지만 증가율이 높았다. 모형 및 체계·체제 연구영역은 전기·후기에 같은 수치였으며, 공공기록과 기록매체에 대한 연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메타데이터, 민간기록 및 기록관리, 법, 역사, 기관, 표준, 정책·제도, 시스템, 보존·복원 등의 연구영역은 후기에 소폭 상승하였다.

이상으로 국내 기록학 학위논문 2,225편 제목에 포함된 키워드를 역할별로 연구대상, 연구도메인, 연구초점 등으로 구분하여 추출하고, 키워드의 내용에 따라 군집화하여 주요 연구영역을 분석하였다. 논문의 중심이 되는 연구대상은 23개 영역, 연구도메인은 25개 범주가 도출되었고 연구초점은 161개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연구대상은 공개·열람·활용(18.97%), 공공영역의 기록관리(16.22%), 민간영역의 기록 및 기록관리(12.39%), 공공영역의 기록(11.97%) 등 네 가지 주제영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도메인에서는 특정 기록(26.89%), 특정 기관(25.79%) 범주의 키워드 출현빈도가 높았다. 연구초점으로는 ‘현황 및 개선방안(30%)’ 키워드가 가장 많이 도출되었다. 종합하면 국내 기록학 학위논문에서는 ‘특정 기록·특정 기관’의 ‘기록 활용·기록·기록관리’를 위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에 따른 주제영역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록학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영역의 기록과 기록관리, 역사, 기관, 분류·기술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2008년에 이르러서는 학위논문의 수도 증가하였으며 전 주제영역에서의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2002~2012년을 전기, 2013~2024년을 후기로 구분하면 기록

처리 장치·기록관리 장비·정보통신 신기술에 대한 연구가 연구의 수는 많지 않으나, 연구 비중이 늘어난 주제영역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록학, 디지털 아카이빙, 교육, 인력, 기준·규정, 분류·기술, 활용, 공공기록의 관리, 평가 등의 연구영역도 증가율이 높았다. 모형, 체계·체제에 대한 연구는 전·후기 비슷하게 수행되었고, 공공기록 및 기록매체에 대한 연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20여 년간 발행된 국내 기록학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기록학의 주요 연구영역을 분석하였다. 국내 기록학의 석·박사 학위논문 2,225편의 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석사논문의 수는 2,152편이며 박사논문의 수는 73편으로 석사논문이 박사논문보다 약 29배 많이 발행되었다. 학위논문의 약 37%가 명지대와 한국외대에서 발행되었으며, 특히 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 두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4%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기록학은 지난 20여 년간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실무형 인재 양성에 집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 연구영역을 분석하기 위하여 논문 제목의 키워드를 연구대상, 연구도메인, 연구초점 등 역할개념 별로 추출한 결과, 연구대상은 공개·열람·활용, 공공영역의 기록 및 기록관리, 민간영역의 기록 및 기록관리 등의 주제영역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도메인으로는 특정 기록, 특정 기관 등에 대한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높았고, 연구초점으로는 ‘현황 및 개선방안’ 키워드가 가장 많이 도출되었다. 종합하면 국내 기록학 학위논문에서 ‘특정 기록, 특정 기관’에서의 ‘기록물의 활용, 기록, 기록관리’를 연구대상으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영역의 동향 분석 결과, 2000년대 초기에는 공공영역의 기록과 기록관리, 역사, 기관, 분류·기술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각급 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고 공공기록물법이 개정된 2008년에는 학위 논문의 수가 증가하고 전 주제영역에 걸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2~2012년과 2013~2024년의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 IT기술, 기록학 이론, 디지털 아카이빙, 교육 및 교육과정, 기록전문직 등에 대한 연구가 그 수는 많지 않으나 전기에 비해 후기에 증가율이 높은 주제영역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주요 연구영역과 연구 주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여 년간 국내 기록학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출처의 기록에 대하여 실무적인 관리 방안을 찾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3D 기술, 블록체인, 메타버스, 챗 GPT와 같은 IT기술을 기록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발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기록학, 디지털 아카이빙, 기록관리 교육, 기록관리 인력 등에 관한 연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록학 정착 초기에는 ‘공공기록관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등의 제도적인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기록화하는 방안, 기록전문직의 직무만족도 향상과 조직 적응 방안, IT기술과의 접목 등 더 넓은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가 시도되어 기록학의 연구영역이 다각화되고 외연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기록학 학위논문의 현황을 정리하고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연구영역을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국내 기록학의 지적구조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배 (2015).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특수교육 분야 연구동향 분석: 1997년~2014년.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1), 281-306.
-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새로운 논문작성법.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
- 국회전자도서관 (발행년불명). 국회전자도서관 상세검색. 출처: <https://dl.nanet.go.kr/>
- 김규환, 남영준 (2009).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17-239. <https://doi.org/10.4275/KSLIS.2009.43.4.217>
- 김규환, 장보성, 이현정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분야의 연구영역 분석 - 논문제목의 구문 및 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417-439. <https://doi.org/10.4275/KSLIS.2009.43.3.417>
- 김남석, 조도희 (1995). 한국 대학도서관의 학위논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3, 109-145.
- 김병준, 천정환 (2020). 박사학위 논문(2002~2019)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변화와 전망. 상허학보, 60, 443-517. <https://doi.org/10.22936/SH.60..202010.012>
- 김선희, 윤순진 (2015). 한국 환경사회학의 지적 구조 -ECO 논문 제목의 동시출현단어분석을 중심으로. ECO, 19(2), 165-211.
- 김영민, 이상준 (2003). 시맨틱을 이용한 연구 논문 검색 시스템.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4(3), 15-22.
- 김용학, 유소영 (2013). 한일 비교 연구의 비교: 인문사회 분야 논문 키워드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4(1), 25-45.
- 김종성 (2024). 국내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논문 인용 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희섭, 강보라 (201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논문의 연구 주제 분석 - 2001년부터 2017년까지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183-204.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4.183>
- 남태우, 이진영 (2009).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51-472. <https://doi.org/10.16981/KLISS.40.2.200906.451>
- 노현아, 장우권 (2013). 타 학문 분야 간의 문헌 인용 행태 분석 -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지를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363-38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4.363>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발행년불명). AI정보과학전공 소개. 출처: <https://record.mju.ac.kr/record/7220/subview.do>
- 박준형, 오효정 (2017).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토픽모델링 기법 비교 - LDA와 HDP를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235-258. <https://doi.org/10.16981/kliss.48.4.201712.235>
- 박준형, 류법모, 오효정 (2018). 시계열 기반 국내 기록관리학 토픽 트렌드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1), 29-4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1.029>
- 박희정 (2017).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언어치료연구' 학술지 게재논문 연구동향 분석: 1998~2015. 언어치료연구, 26(1), 131-143. <https://doi.org/10.15724/jslhd.2017.26.1.012>
- 설문원 (2021). 기록학의 지평. 서울: 조은글터.
- 손혜인, 남영준 (2016). 기록관리학 분야 국내 학술지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와 「기록학연구」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3(1), 85-110. <https://doi.org/10.3743/KOSIM.2016.33.1.085>
- 송정숙 (2010). 한국 문헌정보학의 연구현황 분석: 2001년~2010년 발행 석·박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333-353. <https://doi.org/10.16981/KLISS.41.4.201012.333>
- 임인재, 김신영 (2006). 논문 작성법 (개정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인숙 (1993). 정보원으로서의 학위논문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4, 205-219.
- 조인숙, 신준성 (2012). 국내 기록관리학분야 석·박사학위논문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소통과 인문학, 15, 43-59.
- 최이랑 (2015).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 최근 10년간(2004-2013)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3, 147-177. <https://doi.org/10.20923/KJAS.2015.43.147>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발행년불명). 참여기관.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 출처:
<https://www.dcollection.net/search/common/instList.do>
- 한상완 (2001). 한국기록관리학회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 - 한국기록관리학의 현황과 미래.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 9-18. <https://doi.org/10.14404/JKSARM.2001.1.1.009>
- 홍덕용, 허준석 (2023).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기록관리 분야 연구동향.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4), 73-89.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4.073>
- Buxton, A. B. & Meadows, A. J. (1977). Variation in the information content of titles of research papers with time and discipline. Journal of Documentation, 33(1), 46-52. <https://doi.org/10.1108/eb02663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In-Sook (1993). A Study on the Use of Theses and Dissertations as Information Sour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 205-219.
- Cho, In-Sook & Shin, Jun-Seong (2012). The Bibliometrical Analysis on the Master's & Doctor's Dissertations in the Field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in Korea. Communication and humanities, 15, 43-59.
- Choi, Yilang (201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al Studies in Korea : Focused on Research Papers between 2004 and 2013.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3, 147-177.
<https://doi.org/10.20923/KJAS.2015.43.147>
- Han, Sang-wan (2001). The Present and future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of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 9-18. <https://doi.org/10.14404/JKSARM.2001.1.1.009>
- Hong, Deokyong & Heo, Junseok (2023). Research Trends in Record Management Using Unstructured Text Data Analysi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3(4), 73-89.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4.073>
- Kang, Jungbae (2015). Analysis on Trends of Studies in Special Education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16(1), 281-306.
- Kim, Byungjun & Cheon, Jung-hwan (2020). The Changes and Prospects of Studies on Modern Korean Literature Data Analysis of Doctoral Dissertations from 2000 throughout 2019. Sanghur Hakbo: The Journal of Korean Modern Literature, 60, 443-517. <https://doi.org/10.22936/SH.60..202010.012>
- Kim, Gyuhan, Jang, Bo-Seong, & Yi, Hyun-Jung (2009). A Study on Intellectual Structure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Based on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 of Article Tit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3), 417-439. <https://doi.org/10.4275/KSLIS.2009.43.3.417>
- Kim, Gyuhan & Nam, Young Joon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217-239. <https://doi.org/10.4275/KSLIS.2009.43.4.217>

- Kim, Heesop & Kang, Bora (2018).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opics of the Academic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From 2001 to 2017.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4), 183-204.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4.183>
- Kim, Jong Sung (2024). A Study on the Citing Behaviors of Doctoral Dissertatio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Korea.
- Kim, Nam Seuk & Cho, Do Hi (1995). Study on the management & utilization of these and dissertation in university libraries of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3, 109-145.
- Kim, Sun-Hoi & Yun, Sun-Jin (2015). The Knowledge Structure of Environmental Sociology in Korea: Based on the Co-word Analysis of Article Titles in ECO. *ECO*, 19(2), 165-211.
- Kim, Yong Hak & Yu, So Young (2013). A Comparative Study of Comparative Studies of Korea and Japan: Co-word Analysis i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Social Science Review*, 44(1), 25-45.
- Kim, Young-min & Lee, Sang-joon (2003). Semantic based Research-Paper Searching System.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4(3), 15-22.
-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n.d.). Participating organizations. Digital Collection. Available: <https://www.dcollection.net/search/common/instList.do>
- Korea University Press (2001). *New thesis writing method*.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 Lim, In-Jae & Kim, Shin-Young (2006). *Thesis writing method (Revised ed.)*.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Myong 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n.d.). *Introduction to AI Information Science major*. Available: <https://record.mju.ac.kr/record/7220/subview.do>
- Nam, Tea-woo & Lee, Jin-Young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51-472.
- National Assembly Electronic Library (n.d.). *National Assembly Electronic Library Detailed search*. Available: <https://dl.nanet.go.kr/>
- No, Hyeon-A & Chang, Woo-Kwon (2013). An Analysis of the Bibliographic Citation Behaviors of Other Academic Areas: Case Study in Academic Journals of Korea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363-38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4.363>
- Park, Hee Jung (2017).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Speech-Language and Hearing Disorders by Using a Semantic Network Analysis: 1998-2015.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6(1), 131-143. <https://doi.org/10.15724/jslhd.2017.26.1.012>
- Park, JunHyeong & Oh, Hyo-Jung (2017). Comparison of Topic Modeling Methods for Analyzing Research Trends of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focused on LDA and HDP.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235-258. <https://doi.org/10.16981/kliss.48.4.201712.235>
- Park, JunHyeong, Ryu, Pum-Mo, & Oh, Hyo-Jung (2018). Timeline-Based Topic Trend Analysis of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1), 29-4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1.029>
-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ct No.20309.
- Seol, Moon-Won (2021). *Horizon of Archival Studies*. Seoul: Joeungelter.
- Sohn, Hye In & Nam, Young Joon (2016).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Focused on the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and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1), 85–110.

<https://doi.org/10.3743/KOSIM.2016.33.1.085>

Song, Jung-Sook (2010).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Focused on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from 2001 to 2010.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333–353. <https://doi.org/10.16981/KLISS.41.4.201012.333>